

헌정사 최초...최초...최초... 연일 불명예 기록 세우는 윤석열

가장 적은 득표율 차로 당선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등 각종 '최초' 기록 양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금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를 연일 기록하고 있다.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윤 대통령이 남길 각종 '최초' 기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체포당했다. 재임 중 출국금지를 당하고 국내 교정시설에 구금된 최초의 헌정 대통령이기도 한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고 발부됐으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 과정을 놓고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재임 중 두 번 이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도 최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를 두 번 맞이한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12·3 비상계엄'은 세계적으로 최단 기간(6시간) 동안 선포된 계엄령으로 역사에 남았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계엄을 해제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세 번 '최초' 기록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최초의 서울대 법과대학 및 검사 출신 대통령이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다. 또한 가장 적은 득표율 차(0.73%p)로 당선된 대통령이며,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1639만 4815표)이기도 하다. 대통령 업무 차원에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25회)한 대통령으로 남았다. 윤 대통령 다음으로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노태우(7회)씨보다 3배 이상 많은 거부권을 사용한 것이다. 헌정사 전체로 따지더라도 이승만(45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사용했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된 건수는 24건으로, 윤 대통령은 이승만(14건) 전 대통령을 뛰어넘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폐기시킨 대통령이 됐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청와대를 떠나 새 집무실을 차리고 대통령 관저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첫 서울 출신 대통령,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첫 대통령으로도 남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尹 불명예 기록

- 헌정사 첫 구금 대통령
- 재임 중 피의자 입건·체포
- 본인 체포영장 집행 거부
- 최단기간 6시간 계엄령
- 계엄 해제안 통과로 해제
- 국회에서 탄핵안 폐기
- 6공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사용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하마스, 가자지구 6주간 휴전 합의...19일 발효 전망

전쟁 발발 466일만...3단계 휴전 확전일로 중동 정세 중대 변곡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15개월간 이어진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일단 멈췄다. 레바논과 예멘, 이란 등지로 분쟁이 번지며 확산일로로 걷민 중동 정세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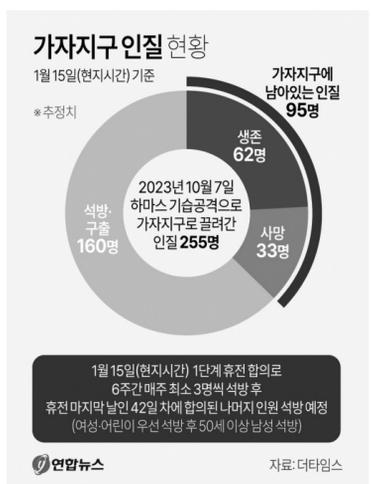
중재국 카타르와 하마스 관계자들이 따르면 이날 양측은 일단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오는 19일 휴전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랍권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전쟁 발발 기준으로 466일, 19일 합의 발효 기준으로는 470일만이며, 1차 휴전이 파기된지 410일만이다.

그간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인질들을 위한 합의(석방 합의)에 도달했다"며 "그들이 곧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내각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휴전 안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일부 강경파 각료는 휴전에 반대하고 있지만 반대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합의안을 보면 하마스는 6주간 이어질 휴전 첫 단계에서 인질 33명을 석방하게 된다. 이 가운데 여성, 19세 미만 어린이 등을 먼저 풀어주고 그다음으로 50세 이상 남성을 풀어준다는 내용이 담



겼다. 하마스는 인질 중 생존자를 먼저 석방한 뒤 시신을 귀환시킬 계획이다. 일단 1주일에 3명씩 풀어주다가 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머지를 전부 석방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귀환 작전을 '참새의 날개'로 명명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이스라엘은 석방되는 자국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이스라엘 여성 군인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각각 풀어주기로 했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이후 불려진 팔레스타인 여성·어린이 수감자는 모두 석방한다. 풀려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총인원은 990~1650명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추산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첫 단계에 가자지구에서 점진적으로 병력을 철수해

야 한다. 또 전쟁 동안 피란길에 오른 가자 북부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귀환시키고, 휴전 기간 매일 트럭 600대 분량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가자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트럭 50대는 매일 연로 운반에 할당된다. 양측은 휴전 16일차가 되면 이스라엘 남성 군인 석방과 영구적 휴전,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 의제를 포함하는 휴전 2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휴전 3단계까지 이르면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유엔이 감독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재건을 개시하게 된다.

이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이스라엘군의 필라델피아 회랑 철수는 휴전 발효 후 최대 50일간 점진적으로 이뤄진다고 적혔다. 이는 휴전 1단계 내에 병력이 전부 빠져나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습격해 1200여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데려갔다. 이 가운데 90여명이 가자에 남아 있다. 한편 15개월에 걸친 이번 전쟁으로 가자지구 전역이 초토화되고 4만6707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망자 대부분은 민간인이며, 전쟁 전 가자지구 인구의 2%에 해당한다. 이 중 신생아를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자만 1만3319명에 이른다. 사망자 집계는 수습된 시신만 포함되는 것이어서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립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긴 설연휴 문 여는 병원 최대 확보한다

당정, 22일부터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옛새가 된 이번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국 응급실에 전담 관리관과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연휴 기간 외래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운영을 독려·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의료 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연휴 기간 외래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운영을 독려·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응급실 413곳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로 일대일 매칭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응급실 환자의 입원·수술 등 배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야간·휴일 수가 가산율을 현행 200%에서 300%로 올린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는데, 이번 설 연휴에 한해 추가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응급실 전문의 인력도 250% 가산, 응급의료 행위 150% 가산 등도 유지한다. 새해 들어 증

가하는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 클리닉 115곳과 협력병원 197곳을 통해 집중적으로 진료한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시설에서 비응급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등의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곳, 아동병원 114곳 등 의료기관이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면서 표본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국민에게 즉시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번 연휴와 그 이후에도 안정적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간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민도 연휴 기간 더 중증인 분들을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약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권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 장 비 용 없 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 동 주(650525-1XXXXXX)
• 최후주사: 광주 광산구 장수길 68-37(장수동)
피상속인 망 이 동 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 12. 24. 4700호로 신청하여 2025년 1월 16일 심판 인용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17일

• 상속인: 1. 이정현(910914-1XXXXXX)
광주 서구 내방로278번길 7, 102동 1704호 (내방동, 솔비타운아파트)
2. 이상현(040221-1XXXXXX)
3. 이은주(010510-XXXXXX)
광주 서구 삼부대로1019번길 19(내방동)

• 신고기간: 2025. 1. 17. ~ 2025. 3. 29.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이정현의 주소

73년을 밝힌 호남인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북 구	• 통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신 571-7658	• 오 치 266-7801
	• 용 통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통 673-6836	• 동 통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통 222-9054
	• 중 통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통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통 376-6511	• 통 통 603-0311
	• 화 통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골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